

# 100°C로 펄펄 끓은 사랑 나눔

### '희망2020나눔캠페인' 73일간 목표 47억여원 달성 생애 첫 월급과 행사 수익금 등 기부 행렬 이어져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목표치를 채우며 펄펄 끓어 올라 100°C를 달성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73일간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47억8400만원이 모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올해 모금 목표(47억8400만원)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목표 금액의 1%씩을 모을 때마다 1°C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이로써 수온주 100°C에서 모금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 침체 여파로 모금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어려움을 매일 극복 더 주위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제주의 전통적인 수놓음 정신이 빛을 발휘하며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서 정비 일로 받은 생애 첫 월급이라며 봉투만 건네고 사라진 익명의 한 기부자에서부터, 자가용을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들어간 희망 2020나눔 캠페인 모금활동이 지난 1월 31일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교통비를 모아 기부한 임상배 원장, 1년 동안 텃밭을 가꾸 마련한 '사랑의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 수익금을 기탁한

대전동주민자치위원회, 2009년부터 11년째 '10원의 행복'이란 주제로 1년 동안 동전을 모아 기부한 대기고등학교 학생들, 2003년부터 18년째 칼과 호미를 갈아주고 받은 수고비를 기탁한 대장장이 이승태씨,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한 양정기·김순덕씨 부부 등 다양한 사연의 기부자들이 나눔의 온기를 더했다.

또 도내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병동 후원금, 제주행복나눔 임직원 성금, 캠페인 기간 6억3000여 만원을 기탁한 제주농협, 신장장애인을 돕기 위해 2억원 상당의 산삼배양제품을 기탁한 조이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조손가구 동절기 난방비와 난방용품 지원사업비 1억원을 기부한 (주)네오플,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한 카카오 등 기관·단체, 기업 등도 나눔을 보냈다.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열어온 캠페인 폐막식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희뿌연 제주시가지 도전역에 초미세먼지 나뭇을 보인 2일 제주도 아라동에서 바라본 제주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총선 이후 나온다

### 국토부 "5월까지 제2공항 후보지 주변 조류 분석"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보완 결과가 4·15 총선 이후 환경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한 성산을 후보지의 조류 충돌 및 조류 보호 문제와 관련한 분석 데이터 확보가 5월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지난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봄철과 겨울철 조류 충돌과 조류 보호 문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5월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5차례 조사에서 사계절 조사가 이뤄졌지만, 봄철 조사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추가할 계획이며 정확한 자료와 풍부한

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한 이후 한달 넘게 재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보다 앞선 10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을 때는 33일 만에 보완서를 작성했다.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사유로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 결과 제주 제2공항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해 말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총선을 치르는 정치권의 부담도 줄어든 전망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이후 2018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늦춰지는 데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5월 중을 목표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 또한 국토부의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한라산 탐방예약제 '노쇼' 속출

### 지난 1~2일 이틀간 404명... 도 "개선대책 마련"

지난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예약 취소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태가 발생했다.

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돌입한 지난 주말과 휴일인 1일과 2일 이틀간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예약자 중 총 404명(1일 217명, 2일 187명)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탐방 입장 마감 시각인 낮 12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탐방로별로 살펴보면 1000명이 예약 정원인 성판악 코스는 이틀간 81명(1일 37명, 2일 44명), 500명이 예약 정원인 관음사 탐방로는 323명(1일 180명, 2일 143명)이 입장 마감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노쇼 탐방객'으로 일부

탐방객들이 탐방 기회를 잃으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해 페널티 부여, 시간대별 예약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관리소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탐방예약제가 성판악 코스 입구부터 이어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방면 갖길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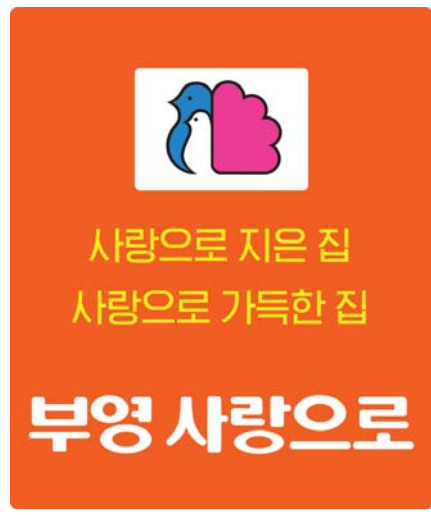
한라산 등반로는 어리목(6.8km), 영실(5.8km), 성판악(9.6km), 관음사(8.7km), 돈내코(7.0km) 등 5개 코스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개다. 나머지는 모두 남벽 분기점까지만 등산이 가능하다.

등반이 허용되는 1일 탐방 인원은 성판악 1000명과 관음사 500명으로, 단체는 1인이 10명까지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현재처럼 예약없이 등반할 수 있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 도,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에는 위반 과태료 부과, 차고지조성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

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현재까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

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조례구축심의회를 거쳐 3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 세화중학교총동문회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동문님 댁내에 두루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도 세화중학교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강남홍(18회)**

<b>일시</b>	<b>2020년 2월 4일(화요일) 오후 7시</b>
<b>장소</b>	<b>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b>
<b>행사</b>	<b>· 제1부 정기총회 · 제2부 신년하례회</b>
<b>고문</b>	정인삼(1회), 정동진(2회), 김명춘(3회), 김대환(4회), 한수철(4회), 김태봉(6회), 부만근(6회), 우근민(6회), 부태림(10회), 정원진(12회), 이봉만(15회), 박동규(15회), 부공남(16회), 김동오(17회), 김우남(18회)

자랑스러운 동문의 취임과 영전·승진을 축하합니다

<b>취임</b>	<b>영전</b>	<b>승진</b>	<b>승진</b>	<b>승진</b>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 제34대 회장 연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공항공정지원단 주민주선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장
				
오 흥 식(대/18회)	문 경 진(세화/25회)	고 성 철(한동/25회)	부 준 배(하도/26회)	고 창 덕(중앙/27회)



세화中學校總同門會 회장 강남홍